

이란 전쟁 섹터별 영향 분석

리서치센터

미국-이란 전쟁 섹터별 영향

반도체	업종 실적과 주가 영향은 제한적. 공급망 교란도 제한적일 것이며, 메모리 가격의 하향 가능성 낮음. 오히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실적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운송	해운 운임상승 기대. 선박량 부족으로 컨테이너 등 운임 상승 가능. 항공업 유류비 상승 압박
유틸리티	연료비 상승 부담으로 마진 하락. LNG와 원유가격 상승은 발전사 전력 구입비 부담 확대. 국내 천연가스 업체 역시 원료비 상승으로 미수금증가, 현금흐름 악화 우려.
LNG(업스트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LNG 운송이 대부분 중단된 상황으로, LNG 가격 급등과 함께 변동성 확대 예상. 또한 LNG 설비 증설 및 액화 플랜트 투자 재개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
원전	가스 수입 차질과 발전 연료비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가스발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저전원 다변화 필요성 부각될 전망. 원전이 대체 전원 옵션으로 재조명될 것.
정유/화학	정유업종은 지정학적 리스크 헤지 수요 및 정제마진 강세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 예상. 등경유 마진 대폭 상승 전망. 반면 화학업종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 비용 부담 증가로 주가 약세 전망.
건설	부정적 영향 예상. 1)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발주 위축, 2) 원자재 및 물류비 상승, 3) 현지 파견 및 투입 인력 확보 어려움,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및 원가 상승 가능성 때문.
철강	부정적 영향 예상. 1) 유가 상승에 따른 전력비 부담 증가 등 원가 상승 우려; 2) 주요 전방산업 위축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 3) 원재료 매입 및 물류비 상승 우려 때문.
2차전지	단기적 비용 상승 리스크는 존재하나 극단적 영향은 제한적. 장기적으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ESS 등 대체 에너지원 투자 늘어날 수 있으며, 높은 유가 지속시 EV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AI	군사용 AI의 중요성이 입증됨.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AI 수요 자극하게 될 요인. 주요 국가들의 소비인 AI 투자 가속할 것.
전기전자	실적 영향 제한적. 주요 전기/전자 업체의 이란 매출 미미함. 또한 현재 섹터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여전히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임.
자동차	섹터 영향은 제한적. 현대차그룹은 이란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한 상황. 유가 상승이 미국 자동차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현대차그룹 미국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될 수 있음.
인터넷/게임	인터넷의 경우 NAVER, 카카오 모두 90% 이상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실상 내수주에 해당.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방어주 관점에서는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화장품/의류	화장품의 중동 수출 비중은 3~4% 수준으로 미미. 주력 수출지역인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 성장이 핵심. 내수 업종이 방어적 성격과 환율 관련 간접적 수혜 가능성.
통신	실적 영향은 제한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인 방어주 역할을 하는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할 가능성.
엔터	콘서트의 경우 중동 및 유럽 투어 비중은 북미 투어 비중 대비 상대적으로 낮기에 이에 따른 탑라인 축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음원 판매량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
은행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유가 상승과 변동성 확대 압력으로 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에 간접 영향 발생 가능. 그러나, 높은 주주환원수익률을 제시하는 은행업 주가는 방어적일 전망
증권	최근 위험 선호 심리 급증으로 주가도 크게 상승한 만큼, 하방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
보험	펀더멘털의 면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 그러나 반대로 배당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진만큼 위험 회피 심리 자극 시 주가가 급락할 수 있음.
제약/바이오	실적 및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영향은 제한적. 필수재 성격이 강해 경기 및 지정학적 이벤트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국면에서 나타나는 달러 강세 환경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긍정적.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수출에서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5% 내외). 전쟁이 시스템 리스크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제외하면 과거에도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반도체

결론: 금번 미국-이란간 전쟁 발발로 인해 업종 실적과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함. 원/달러 환율 인상 가능성 측면에서도 이미 1,300원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업종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기의 이유로 메모리 가격이 유지될 경우 환율 상승이 실적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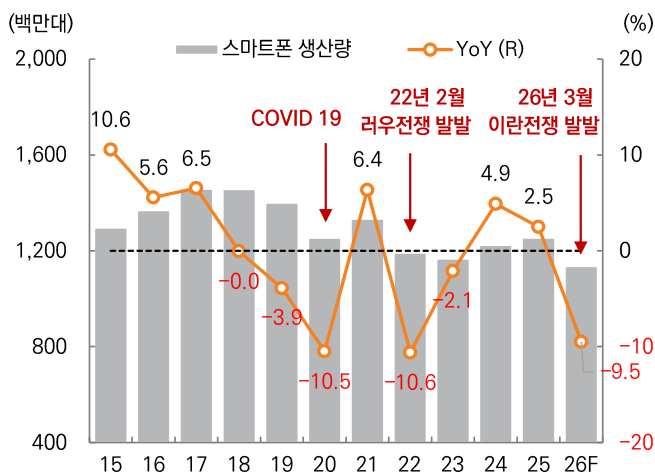
IT Set 및 반도체 수요: 22년 초 러-우 전쟁 당시 에너지 및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IT set 수요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음. 22년 스마트폰 생산량은 YoY -10.5%, 노트북 출하량은 YoY -23.8% 감소함. 다만, 이는 20 ~ 21년 COVID 19 국면의 국가별 지원금과 비대면 확대에 따른 수요가 유발했던 높은 기저도 배제하기 어려움.

이미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마진율 압박 영향으로 중저가 Set의 26F 생산량 전망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상태임. 가격 민감도가 높지 않은 고부가 Set 위주로 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전쟁 발발에 의한 직간접적 수요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함. 또한, 현재 메모리의 데이터센터용 수요 비중은 각 60%대로 높아져 있으며, 대부분 미국향임.

반도체 공급: 러-우 전쟁의 경우 네온(Ne) 가스 등 반도체 생산에 필수 원재료의 공급망에 차질을 빚은 바 있음. 그러나 이란과 인접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조달하는 원재료는 제한적인 관계로 금번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함. 오히려 매크로 불확실성을 의식한 공급자의 자발적이며 보수적인 설비투자 기조가 동반될 가능성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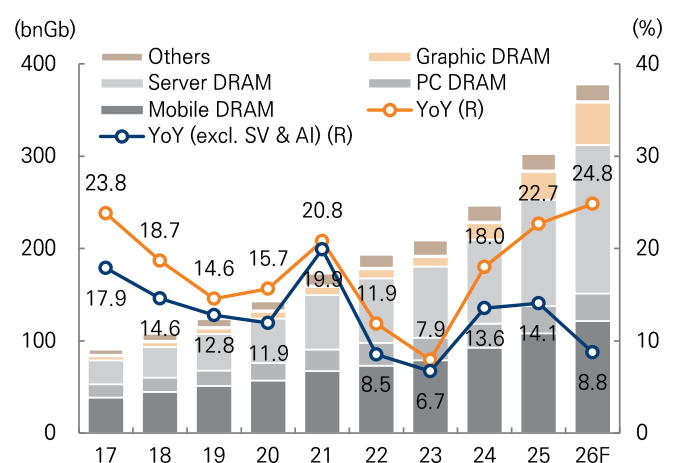
실적 및 주가: 메모리 가격의 하향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며 실적 또한 조정 여지가 제한적임. 또한, 금번 미국의 공습 의사결정 과정에서 Claude 등 AI의 실전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AI와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주가의 높은 기저에 따라 일부 조정구간에 진입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신규 진입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함.

그림 1. 스마트폰 생산량 추이 및 전망



자료: Trendforc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DRAM 주요 응용별 수요 추이 및 전망



자료: Trendforc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운송

선복량 부족으로 해운 운임상승 기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운항 거리 증가와 실질적인 배 공급이 축소로 컨테이너 등 운임 상승 가능.

글로벌 공급망 정체: 운항 지연으로 주요 항만의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제조·유통업계의 재고 관리 비용을 높이는 연쇄 작용 예상.

항공 유류비 상승 압박: 분쟁 지역 영공 폐쇄 시 기재 회전을까지 떨어져 운영 효율이 저하됨.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면 해외여행 심리가 저하. 단 해운 물류가 막혀 급해진 화물이 항공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발생으로 반사이익 기대.

유틸리티

연료비 상승 부담으로 마진하락 예상. LNG와 원유 가격이 상승은 전력 도매가격(SMP)이 상승으로 이어짐. 발전사 전력 구입비 부담 확대. 현재 판매단가가 이미 높은상황으로 비용 전가도 쉽지 않은 상황. 국내 천연가스업체 역시 원료비 상승으로 미수금 증가, 현금흐름 악화 우려.

L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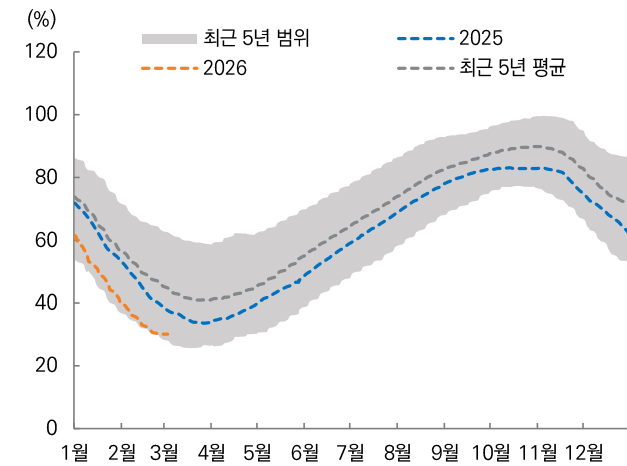
결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LNG 밸류체인 수혜 전망.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LNG 수출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주요 수송로로, 경로 봉쇄에 따라 중동발 LNG 공급 감소 우려 확대. 현재 150척 이상의 원유 및 LNG 운반선이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카타르 인근 공해상에 정박 중이며,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LNG 운송이 대부분 중단된 상황. 기존 카타르산 LNG를 수입하던 EU, 중국 등은 미국과 호주 등에서 대체 수입 필요. 단기적으로 과거 러우 전쟁과 마찬가지로 LNG 가격 급등과 함께 변동성 확대 전망.

LNG 수급: 러우 전쟁 이후 급등했던 LNG 가격은 공급망 재편과 미국 LNG 수출 확대에 힘입어 안정세를 보였으나,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재차 글로벌 LNG 물동량 20%에 대해 직접적인 제약 발생. LNG는 액화 시설과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제약이 큰 에너지원으로 단기 수급 차질에도 가격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구조. 유럽은 동절기 이후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며 5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2분기부터 재비축 수요가 예상된 만큼, 재고 정상화를 위한 추가 수입 수요 확대 불가피. Goldman Sachs는 해협이 한 달간 봉쇄될 경우 유럽·아시아 가스 가격이 두 배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유럽 벤치마크인 TTF 가격은 최대 130% 상승해 MMBtu당 25달러까지 도달 가능성을 제시.

실적 및 추가: 글로벌 LNG 가격 강세는 천연가스 생산지로부터 천연가스를 액화 후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LNG 기업들의 실적 개선 요인. JKM(아시아), TTF(유럽) 등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ASP 상승 및 마진 개선으로 귀결. LNG를 고정된 마진으로 판매하는 장기 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보다는 시장 가격에 LNG를 판매할 수 있는 현물 판매 비중이 큰 기업이 가격 상승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수혜 예상.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가스 공급 불안이 구조화되면서 LNG 설비 증설 및 액화 플랜트 투자 재개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LNG 생산 기업뿐 아니라 액화 플랜트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EPC·피팅·밸브·압축기 등 관련 밸류체인 전반으로 수혜 확산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정학적 변수 해소 시 가격 조정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주가 변동성 확대 국면이라는 점은 감안할 필요.

그림 3. 유럽 천연가스 재고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유럽과 미국 천연가스 스프레드 추이(TTF-HH)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원전

결론: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연계된 군사적 긴장에서 비롯됐으나, 상업용 원전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 이번 사안은 우라늄 농축을 통한 무기화와 관련된 것으로, 정부 인가하에 저농도 농축우라늄(LEU)을 연료로 사용하는 상업용 원전과는 구조적으로 구분. 이란은 자체 우라늄 광산과 독자 농축 설비를 기반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이는 글로벌 원전 밸류체인과 무관.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가스 수입 차질과 발전 연료비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가스발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저전원 다변화 필요성 부각될 전망이다. 발전 믹스 내 변동성이 낮고 연료 조달 계약이 장기화 돼있는 원전이 대체 전원 옵션으로 재조명될 것으로 분석

미국과 한국 원전 산업 수혜 기대: 미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 군사적 대응에 나섰다 는 점은 향후 신규 원전 도입국 입장에서 핵 통제 체제 내 미국의 영향력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 원전은 발전 설비를 넘어 핵연료 주기, 농축·재처리, 연료 공급 계약 등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와 미국의 123협정 구조와 긴밀히 연결. 이에 따라 신규 원전 도입국은 규제 리스크, 금융 조달 안정성, 장기 핵연료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미국과 미국의 승인하에 원전 사업을 진행중인 한국형 원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원전은 발주 이전 단계에서 규제 협의, 타당성 검토, 공급사 선정, 부지 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 등 복수의 사전 절차가 선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통상 최종 투자결정(FID)까지 최소 3년 이상의 기간 소요. 따라서 금번 충돌이 곧바로 기업들의 신규 수주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

다만 가스발전 연료비 변동성이 확대되고 에너지 안보 이슈가 정책 우선순위로 재부상하는 환경에서는 원전의 기저전원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이 재평가될 여지 충분.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믹스 다변화 정책 확산과 함께 신규 원전 도입국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원전 TAM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표 1. 주요 원자로 수출 기업 비교

원자로 공급사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	Rosatom	EDF	CNNC
					
국가	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주요 노형	APR1400	AP1000	VVER1000/1200	EPR/EPR1750	Hualong One
출력	1,400MW	1,117MW	1,170MW	1,700MW	1,150MW
설계 수명	60년	60년	60년	60년	60년
설비 이용률	94%	93%	90%	96%	90%
평균 건설 기간	8.6년	9.3년	9.1년	13.6년	5.3년
운영 중인 노형수	8기	6기	37기	4기	13기
건설 중인 노형수	2기	0기	20기	2기	15기

자료: IAEA, World Nuclear Associatio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정유/화학

결론: 정유 강세, 화학 약세 예상.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통과 힘들어져, 유가 및 정제마진 강세 전망. OPEC+가 4월부터 20.7만 b/d 증산 결정으로는 역부족. 향후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1)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 시점, 2)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 타격 피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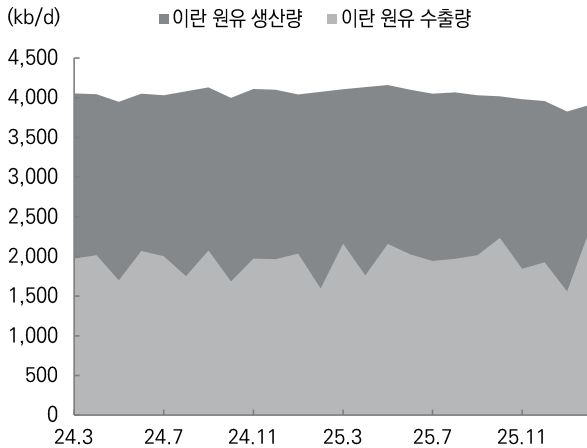
이란 및 호르무즈 해협: 이란은 원유 생산량 약 400만 b/d(글로벌 원유생산량의 4%), 수출량 200만 b/d 수준의 중요한 산유국. 아직은 Kharg Island 등 주요 항구의 피해 소식이 알려진 바 없고, 2월까지 수출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당장 이란 자체 수출 감소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이란의 수출량 중 80~90%는 중국향으로 알려진 상황

향후 에너지 시장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여부.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의 20%, 글로벌 LNG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지역. **이미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 1) 호르무즈 통과 선박 보험 커버리지 철회, 2) 이란 해안 경비대의 무차별적 사격, 3) 6년 내 최고 수준의 해상 운임 때문.**

정유: 지정학적 리스크 헤지 수요 및 정제마진 강세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 예상. 등경유 마진 대폭 상승 전망. 과거 2026년 6월 미국이 이란을 타격했을 때에도 등경유 마진이 \$15 → \$20로 \$5 상승. 등경유는 군사 작전에 필수적이고 대체가 어렵기 때문. 초반에는 경유가 많이 부족해질 것이나, 점차 항공유의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휘발유 마진은 아직 글로벌 재고가 충분한 편이어서 크게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그 다음으로 마진이 상승할 제품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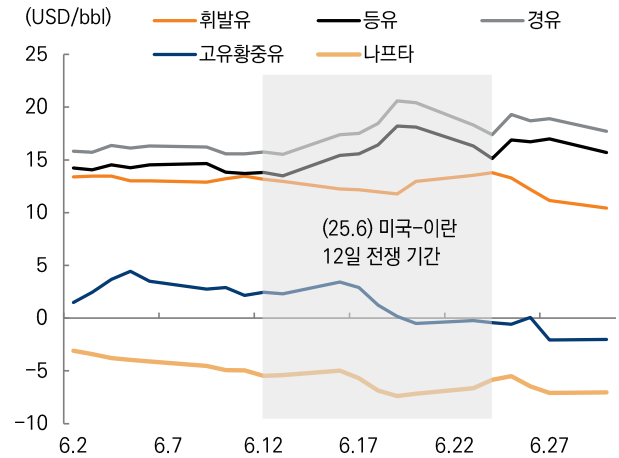
화학: 유가 상승으로 인한 피드스탁 비용 부담 증가로 주가 약세 전망. 이미 에틸렌 스프레드가 100달러 아래로 하락해 실적 악화 우려가 존재. 하지만 이번 사태로 추가적인 실적 악화 가능성 존재

그림 5. 이란 원유 생산량과 수출량 추이



자료: Kple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2025년 6월 미국-이란 12일 전쟁 당시 정제마진 추이



자료: Petron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건설

부정적 영향 예상됨. 1)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및 확산 우려에 따른 발주 위축 우려, 2)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시, 원자재 및 물류비 상승 우려, 3) 현지 파견 및 투입 인력 확보 어려움,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및 원가 상승 가능성 때문.

2025년 6월 이란-이스라엘 사태 당시 주요 대형 건설업체 주가는 관련 우려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했음. 다만, 건설업종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해외 원전 밸류체인의 지역(미국, 체코, 베트남 등) 고려 시 금번 이란 사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철강

부정적 영향 예상. 1) 유가 상승에 따른 전력비 부담 증가 등 원가 상승 우려, 2) 중동 리스크 확산으로 인한 주요 전방산업 위축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 3)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시, 원재료 매입 및 물류비 상승 우려에 기인.

2차전지

미국-이란 간 전쟁 발발로 인한 2차전지 업종 영향은 1) 단기적 비용 상승 리스크는 존재하나 극단적 업황 영향은 제한적이며, 2)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정책 효과 발생 여부에 주목.

단기 관점의 리스크는 비용 리스크이며, 1) 글로벌 운임비 상승, 2)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공정 원가 상승, 3)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일부 소재 단 원재료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존재. 단, 한국 2차전지 업황 측면에서 극단적인 수준의 리스크로 확대 제한적. 1) 이미 각 지역별 리쇼어링이 사실 상 완료되어 있으며, 2) 유럽 향 물량 비중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북미 비중 높음), 3) 경쟁 측면에서도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2차전지 밸류체인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음.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이슈로 인해, 1) 지역 별 신재생에너지/ESS 등 대체 에너지원 투자 강도,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리쇼어링 정책 방향성에 주목. 3) 전쟁 장기화 시, 높은 유가 지속으로 인한 내연기관 소유비용 상승으로 EV 수요 개선 방향성에도 주목

AI

베네주엘라 사례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공격시 AI의 활용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임. 실시간 전장 분석 및 감시, 대규모 정보 분석, 드론 자율 비행 등 실제 작전에서 AI의 중요성이 입증됨. 또한, 작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주요 목표물의 동선파악 등 대규모 정보 처리가 필요한 군사적 업무에 AI의 활용은 필수임. 이는 민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AI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주요 국가들의 소버린 AI 투자를 가속화 할 것임.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등 역내 AI 허브 전략을 추진하던 국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런 계획이 잠시 중단될 수 있음. 그러나, 앞서 거론한 이유로 장기적인 AI 투자는 오히려 강화될 것임. 유가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이 장기화될 경우 전력비용 상승은 부담일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함.

전기전자

결론: 전기전자 섹터의 **실질적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등 주요 전기전자 업체들은 모두 이란과의 직접 거래가 없어 매출 훼손이 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환율 및 수급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으나, 섹터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여전히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다. 따라서 이번 지정학 이벤트는 펀더멘털 훼손 이슈보다는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접적인 영향: 이란과의 직접적인 매출 연관성이 없다. 삼성전기·LG전자·LG이노텍 모두 이란향 수출이나 현지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쟁에 따른 직접 매출 감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질 봉쇄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물류 우회가 발생하더라도 LG전자 가전 일부 물량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을 감안하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최근 전기전자 업종의 주가 흐름은 지정학 변수보다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기대에 연동되어 움직여 왔다. 특히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MLCC 및 FC-BGA 수요 증가 기대를 반영하며 삼성전자 대비 높은 초과수익을 기록했다. 이는 현재 섹터의 핵심 드라이버가 중동 리스크가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AI CAPEX라는 점을 보여준다.

LG이노텍 역시 AI 서버 기판과 애플 카메라 모듈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며, LG전자는 AI 노출도는 낮지만 전장(VS)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이 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적 및 추가: 과거 걸프전, 이라크전, 최근 중동 분쟁 사례를 보면, 전쟁이 반도체 및 IT 수요 사이클을 직접 훼손하지 않는 한 전기전자 업종은 단기 조정 이후 빠르게 정상화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전쟁 개시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되며 주가가 반등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핵심은 실물 수요 훼손 여부이며, 현재까지 AI 인프라 투자 축소 조짐은 확인되지 않는다.

삼성전기는 AI 인프라 부품 수요와 가장 밀접하게 연동되는 종목으로, 단기 지정학 변동성 확대 시 매수 기회 관점 접근을 권고한다. LG이노텍은 AI 서버 기판과 애플 모멘텀이 병존하는 구조로 안정적인 중간 베타 전략이 유효하다. LG전자는 가전 비중이 높아 거시 경기 및 환율 영향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며, 섹터 내 방어적 포지션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2. 글로벌 전쟁 리스크 이후 전기전자 업종 패턴

이벤트	시기	글로벌 시장 반응	전기전자 업종 패턴	회복기간
걸프전	1990.08	S&P500 -18% (3개월)	단기 외국인 이탈 후 반도체 수요 정상화	3~4개월
이라크전쟁	2003.03	S&P500 -9% → 전쟁 개시 후 반등	불확실성 해소 반응. IT 부품주 저점 매수 기회	3개월
레바논 전쟁	2006.07	S&P500 -2.3% (1주)	유가 직접 충격 없어 전기전자 사실상 무영향	2주
하마스 전쟁	2023.1	S&P500 -6% (최대)	AI 수요 재확인하며 단기 조정 후 V자 반등	3주
이란 미사일(참고)	2024.04	S&P500 -1~2% (단기)	호르무즈 미봉쇄 → 전기전자 영향 제한적	리스크 제한적

자료: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섹터 영향은 제한적이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이란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한 상황이다. 유가 상승이 미국 자동차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현대차그룹 미국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자동차 대기수요는 가격/금리에 민감한 소비자로 형성되어 있다.

유가 부담으로 현대차그룹의 산업 대비 높은 가격매력도가 부각될 것이고, 연비가 높은 HEV수요가 확대될 수 있겠다. 원/달러 환율 10원 상승의 증익 효과는 연간 2~3천억원이다. 연초부터 섹터 주가를 견인한 것은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이다. 실적 영향은 제한적인 가운데, 지속될 신사업 모멘텀에 주목할 시점이다.

인터넷/게임

인터넷/게임 업종의 이란 사태에 따른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인터넷의 경우 NAVER, 카카오 모두 90% 이상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실상 내수주에 해당. 글로벌 매출도 웹툰 매출액이 대부분으로 현 사태와는 무관. 게임의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가 일부 존재하나 중동 매출 비중이 유의미한 수준은 아님

다만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방어주 관점에서는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인터넷 업종 내에서는 26F P/E 18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NAVER가 부각될 가능성 존재. 게임은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을 보였음.

화장품/의류

화장품/내수 업종의 이란사태 관련 실적 영향은 제한적. 화장품의 중동 수출 비중은 3~4% 수준으로 미미. 주력 수출지역인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 성장이 핵심. 내수 업종이 방어적 성격과 환율 관련 간접적 수혜 가능성에 비롯해 관심 유효하다고 판단.

환율과 인바운드 관광객의 쇼핑 여력은 밀접한 관련. 특히 백화점 명품 쇼핑 수요가 강해질 수 있음. 최근 밸류에이션 부담 높아진 신세계(12MF PER 13배)의 추가 리레이팅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통신/엔터

통신 업종은 이란 사태에 따른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국내 통신서비스 3사의 매출은 내수에서 발생하기 때문.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인 방어를 역할을 하는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또한, 지난 4분기 분기 이익 바닥을 기점으로 1분기부터 실적 우상향 예상.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 12개월 선행 P/E 기준 7배인 KT 선호

엔터 업종은 이란 사태에 따른 주가 영향은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음. 다만,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는데 글로벌 음반 판매량 및 콘서트 매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 콘서트의 경우 중동 및 유럽 투어 비중은 북미 투어 비중 대비 상대적으로 낮기에 이에 따른 타라인 축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음원 판매량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 또한 해외 매출 환산 이익 증가로 인하여 실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엔터 업종 내에서는 하이브 선호

금융(은행/증권/보험)

은행업은 내수 산업인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유가 상승과 변동성 확대 압력으로 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에 간접 영향 발생 가능. 그러나 현재 은행은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모두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오히려 이번 사태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자극될 경우, 높은 주주환원수익률을 제시하는 은행업 주가는 방어적일 전망.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정책에 힘입어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증권업은 최근 위험 선호 심리 급증으로 주가도 크게 상승한만큼, 하방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 브로커리지의 경우 위험 회피로 유동성이 이탈하면 위탁매매 수수료수익과 대출채권 이자수익에 타격. 트레이딩의 경우 증시 부진과 시장금리 상승이 동반 발생 시 주식, 채권, 대체투자 전 부문에서 평가의 감소. 특히 최근 상법 개정안 기대로 주가 상승률이 특히 높았던 만큼 주주환원수익률이 낮아진 점도 부담. 자사주 매입 정책이 부족한만큼 수급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단도 제한적.

보험업은 펀더멘털의 면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 투자손익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이 단기적으로 채권 평가익에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신규 투자이익은 개선. 자본비용의 경우 최근 당국 주도의 ALM 매칭 강화로 금리에 따른 변동성이 완화. 다만 최근 주가는 펀더멘털보다는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로 급등. 그러나 반대로 배당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진 만큼 위험 회피 심리 자극 시 주가가 급락할 수 있음.

제약/바이오

위험자산 회피 심리 확대에 따라 제약/바이오 업종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실적 및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경제 위기나 전쟁 중에도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치료제나 필수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 하지만, 단기적 투자심리악화 및 시장 변동성확대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 장기화될 경우 현지 임상 및 제품 판매 중단 우려있음. 국내 이수업지스의 경우 고서병치료제를 이란에 판매 중.

제약/바이오 업종은 에너지 의존도가 낮고 필수재 성격이 강해 경기 및 지정학적 이벤트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국면에서 나타나는 달러 강세 환경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원화 환산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단기 급락 이후 빠르게 시장 대비 아웃퍼폼했던 흐름이 확인된 바 있어, 금번 역시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단기センチメント 영향에 그칠 가능성에 주목한다.

CDMO(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유한양행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석유화학 기반 소모품 가격 상승 가능성은 존재하나, CDMO 사업 특성상 계약 구조 내 원가 상승분을 고객사에 전가(pass-through)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 훼손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또한 주요 고객이 경기 방어적 성격의 글로벌 빅파마이며 장기 생산 계약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수요 변동 리스크 역시 낮다. 매출 대부분이 달러 기반으로 인식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원화 약세는 곧바로 이익률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어, 전쟁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은 세그먼트로 판단한다.

상업화 신약/시밀러(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SK바이오팜 등):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필수재 성격이 강해 경기 둔화나 지정학적 이벤트에 따른 수요 탄력성이 낮은 산업군이다. 글로벌 처방 기반 매출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매출 변동성은 제한적이며, 달러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원화 약세 환경은 실적 측면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직접 판매 및 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구조상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및 운송비 증가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는 단기적으로 일부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약 R&D(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는 금리 상승 및 위험 프리미엄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래 현금흐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이 산정되는 신약 개발 바이오텍에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달러 강세 환경에서 글로벌 기술이전 협상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빅파마의 사업개발(BD) 수요 역시 경기 및 전쟁 이벤트와 구조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펀더멘털 훼손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결국 기업가치 방향성은 외부 매크로 변수보다는 기술수출, 파트너십 진전, 임상 데이터 도출 등 개별 이벤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긍정적인 개별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구간으로 판단한다.

전통 제약사(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등): 전통 제약사는 내수 처방의약품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직접적인 수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 중심 처방 구조는 글로벌 매크로 변동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섹터 내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방어적 성격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올해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시행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국내 정책 이벤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기

결론: 현재 수출 비중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 기업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중동지역이나 중동기업과의 계약과 관련 있는 기업이라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겠다. 펀더멘탈(계약성사 혹은 영업개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낙폭 과대시 밸류에이션 매력 발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적 영향: 현재 이벤트가 의료기기 섹터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기기의 수출에서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2025년 연간 관세청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은 미용기기 5.5%, 체외진단(PCR 및 면역진단) 5.1%, 치과 7.8% 수준이다. 의료기기 기업들이 국가/지역별 수출비중을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으나, 각 세부 섹터별 전체 비중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주가 영향: 전쟁이 시스템 리스크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제외하면 과거 이벤트에서도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중동지역에서나 혹은 중동관련 기업과 계약을 앞두고 있는 기업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이벤트가 펀더멘탈(계약성사 혹은 영업 개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낙폭 과대시 밸류에이션 매력 발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TIGER 의료기기 ETF 주가 추이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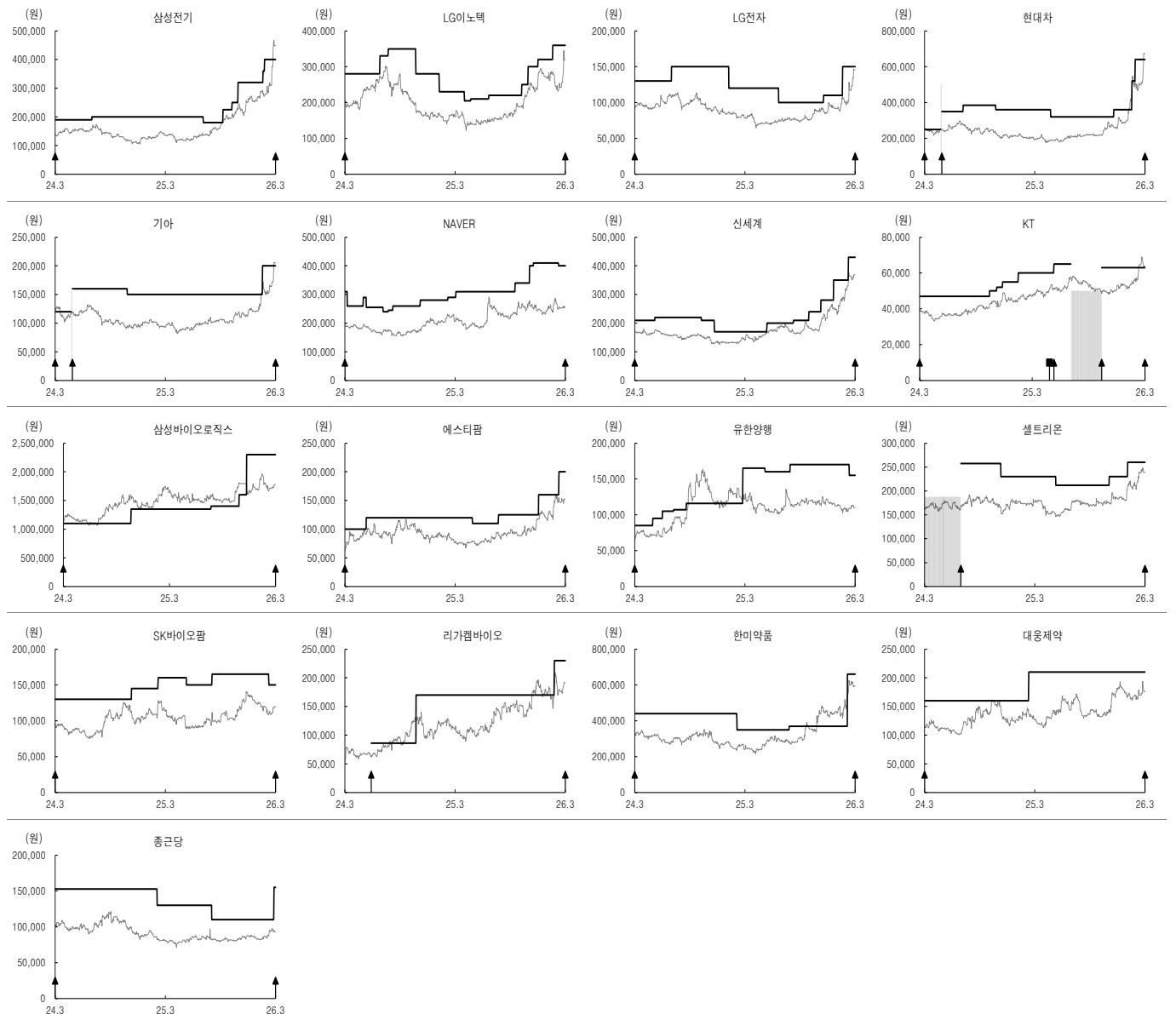
투자조건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제시일자	투자조건	목표주가(원)	과리율(%)		제시일자	투자조건	목표주가(원)	과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삼성전기 (009150)					2024.07.08	매수	240,000	-27.69	-26.04
2026.01.26	매수	400,000	-	-	2024.05.13	매수	255,000	-32.42	-26.08
2026.01.21	매수	360,000	-22.92	-21.39	2024.05.03	매수	290,000	-34.26	-32.83
2025.10.30	매수	320,000	-21.07	-8.75	2024.03.11	매수	260,000	-28.39	-25.27
2025.10.10	매수	250,000	-14.24	-7.20	2024.02.02	매수	310,000	-35.52	-32.90
2025.09.10	매수	225,000	-13.08	-8.00	신세계 (004170)				
2025.07.07	매수	180,000	-15.29	0.17	2026.02.09	매수	430,000	-	-
2025.07.03	1년 경과 이후	200,000	-30.70	-30.70	2025.12.22	매수	350,000	-20.28	-5.86
2024.07.03	매수	200,000	-34.28	-13.65	2025.11.10	매수	280,000	-16.15	-5.18
2023.11.28	매수	190,000	-22.13	-16.00	2025.10.01	매수	240,000	-25.83	-20.00
LGI노택 (011070)					2025.08.11	매수	210,000	-16.36	-2.14
2026.01.21	매수	360,000	-	-	2025.05.15	매수	200,000	-10.14	-1.10
2025.12.03	매수	320,000	-12.59	-7.97	2024.11.22	매수	170,000	-16.74	1.59
2025.10.31	매수	300,000	-19.32	-14.67	2024.10.10	매수	210,000	-31.43	-26.33
2025.10.10	매수	250,000	-15.19	-7.60	2024.05.09	매수	220,000	-28.54	-19.64
2025.06.23	매수	220,000	-25.50	-10.23	2024.01.17	매수	210,000	-19.08	-9.76
2025.04.24	매수	210,000	-30.99	-26.95	KT (030200)				
2025.04.03	매수	205,000	-33.03	-28.88	2025.10.14	매수	63,000	-	-
2025.01.10	매수	230,000	-29.92	-22.83	2025.07.07	분석 대상 제외		-	-
2024.10.24	매수	280,000	-40.29	-36.57	2025.05.12	매수	65,000	-19.72	-11.23
2024.07.25	매수	350,000	-33.40	-20.00	2025.04.28	Trading Buy	60,000	-19.45	-10.83
2024.06.27	매수	330,000	-14.61	-8.48	2025.01.17	매수	60,000	-20.06	-15.50
2024.01.29	매수	280,000	-23.09	-2.50	2024.11.27	매수	55,000	-17.42	-10.91
LG전자 (066570)					2024.11.08	매수	52,000	-16.86	-12.50
2026.01.21	매수	150,000	-	-	2024.10.16	매수	50,000	-12.78	-11.30
2025.11.19	매수	110,000	-15.97	-2.82	2024.02.10	1년 경과 이후		-	-
2025.06.23	매수	100,000	-20.40	-7.10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2025.01.09	매수	120,000	-36.36	-28.00	2025.11.24	매수	2,300,000	-	-
2024.07.03	매수	150,000	-35.30	-24.07	2025.10.29	매수	1,600,000	12.31	12.31
2024.01.29	매수	130,000	-24.60	-14.31	2025.07.24	매수	1,400,000	10.42	29.51
현대차 (005380)					2024.10.22	매수	1,350,000	12.61	29.19
2026.01.30	매수	640,000	-	-	2024.03.02	1년 경과 이후		-	-
2026.01.19	매수	520,000	-2.20	5.58	에스티팜 (237690)				
2025.11.20	매수	360,000	-14.97	17.22	2026.02.10	매수	200,000	-	-
2025.04.25	매수	320,000	-31.72	-8.91	2025.12.05	매수	160,000	-17.12	0.38
2024.10.25	매수	360,000	-42.92	-37.08	2025.07.25	매수	125,000	-23.31	-4.88
2024.07.09	매수	385,000	-35.73	-27.66	2025.04.30	매수	110,000	-26.65	-13.82
2024.04.29	매수	350,000	-23.93	-14.86	2024.05.13	매수	120,000	-24.82	-2.50
2024.04.26	분석 대상 제외		-	-	2023.11.02	매수	100,000	-28.25	-0.20
2023.04.26	매수	250,000	-18.64	2.20	유한양행 (000100)				
기아 (000270)					2026.02.12	매수	155,000	-	-
2026.01.19	매수	200,000	-	-	2025.07.31	매수	170,000	-32.24	-26.47
2025.10.28	1년 경과 이후	150,000	-19.41	1.67	2025.05.09	매수	160,000	-31.57	-15.13
2024.10.28	매수	150,000	-34.65	-21.27	2025.02.24	매수	165,000	-29.09	-20.55
2024.04.29	매수	160,000	-30.27	-17.31	2024.08.21	매수	116,000	12.29	41.12
2024.04.26	분석 대상 제외		-	-	2024.07.10	매수	107,000	-13.08	-8.60
2023.10.27	매수	120,000	-16.12	7.08	2024.06.03	매수	105,000	-24.46	-14.76
NAVER (035420)					2024.05.02	매수	95,000	-24.15	-18.53
2026.02.09	매수	400,000	-	-	2024.02.07	매수	85,000	-16.37	-6.82
2025.11.18	매수	410,000	-38.73	-30.00	셀트리온 (068270)				
2025.11.05	매수	400,000	-34.86	-33.63	2026.01.05	매수	260,000	-	-
2025.09.18	매수	340,000	-25.01	-19.26	2025.11.05	매수	230,000	-19.78	-11.96
2025.03.06	매수	310,000	-30.19	-6.29	2025.05.12	매수	211,907	-20.14	-13.08
2025.02.07	매수	290,000	-23.68	-20.17	2024.11.11	매수	229,989	-26.55	-20.32
2024.11.08	매수	280,000	-27.39	-17.14	2024.07.01	매수	257,588	-31.04	-25.36
2024.08.09	매수	260,000	-35.83	-30.88	SK바이오팜 (326030)				
2024.07.25	매수	245,000	-31.29	-28.57	2026.02.09	매수	150,000	-	-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 추이

제시일자	투자 의견	목표주가(원)	과리율(%)		제시일자	투자 의견	목표주가(원)	과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25.08.05	매수	165,000	-29.75	-14.73	2025.02.05	매수	350,000	-23.42	-9.57
2025.05.12	매수	150,000	-37.26	-31.27	2025.01.22	1년 경과 이후	440,000	-45.11	-43.98
2025.02.07	매수	160,000	-32.48	-20.13	2024.01.22	매수	440,000	-30.78	-20.34
2024.11.11	매수	145,000	-26.87	-12.41	대웅제약 (069620)				
2024.08.11	1년 경과 이후	130,000	-14.20	-3.15	2025.02.11	매수	210,000	-	-
2023.08.11	매수	130,000	-33.27	-20.08	2024.04.26	1년 경과 이후	160,000	-19.90	0.69
리가캠바이오 (141080)					2023.04.26	매수	160,000	-31.69	-20.69
2026.01.26	매수	230,000	-	-	종근당 (185750)				
2025.10.25	1년 경과 이후	170,000	0.12	15.35	2026.02.26	매수	155,000	-	-
2024.10.25	매수	170,000	-28.92	-5.71	2025.08.04	매수	110,000	-23.28	-11.18
2024.05.29	매수	86,000	2.96	52.33	2025.02.04	매수	130,000	-37.08	-25.77
한미약품 (128940)					2025.01.22	1년 경과 이후	152,843	-44.03	-42.88
2026.02.06	매수	660,000	-	-	2024.01.22	매수	152,843	-33.89	-20.75
2025.07.28	매수	370,000	5.55	46.22					

* 과리율 산정: 수정주가 적용, 목표주가 대상시점은 1년이며 목표주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전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함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기업	산업
매수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2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높거나 상승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10% 이내의 등락이 예상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수준
매도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주가하락이 예상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낮거나 약화

매수(▲), Trading Buy(■), 중립(●), 매도(◆),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 2025년 5월 12일 기준으로 투자의견 분류기준 변경(Trading Buy 의견 삭제)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 20% 미만의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은 금융투자분석사 재량에 따라 '매수' 또는 '중립' 의견으로 제시함

투자의견 비율

매수(매수)	Trading Buy(매수)	중립(중립)	매도
79.76%	1.19%	19.05%	0%

*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NAVER, 이슈애플리케이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한미약품, LG전자, 셀트리온, 기아, 신세계, 현대차, 삼성전기, LG이노텍, KT, NAVER,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브 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리가캠바이오 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을 위한 신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